

# 장미 재배작형별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 발생생태 및 살비제별 방제효과

김윤정, 김성기, 홍순성, 박정규<sup>1</sup>, 이준호<sup>2</sup>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sup>1</sup>경상대학교 농생물학과,

<sup>2</sup>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시설장미 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 Koch)의 발생생태 및 살비제별 방제효과를 구명하고자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미 재배작형별 점박이응애의 발생생태를 각 발육단계별로 경기도내 고양, 용인등 장미 주요 재배단지에서 조사한 결과, 동계휴면재배시 점박이응애는 3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6월~7월에 발생밀도가 가장 높았고, 연중 가온하여 재배하는 주년재배와 양액재배에서는 연중 발생하였으며, 동계휴면재배보다 빠른 5월~7월에 발생밀도가 높았고, 양액재배의 경우는 토양재배에 비하여 밀도가 낮았다. 경시적 연령분포는 전체적으로 발생이 높은 5월~7월에는 알과 유충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나,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8월부터는 약충과 성충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였다.

점박이응애의 약제별 살비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각 장미 재배년수가 다른 고양 4농가, 용인 2농가를 선정, 점박이응애를 채집하여 Cell residual method 등을 이용하여 Fenazaquin SC등 살비제 27종을 알과 성충에 대하여 실내검정하였다. 약제별 점박이응애 살란효과는 Fenazaquin SC, Azocyclotin WP, Hexythiazox+Machine oil EC, Tebufenpyrad+Furathiocarb WP 등이 우수하였으며, 살성충 효과는 Abamectin EC, Azocyclotin WP, Fenazaquin SC 등이 우수하였으나, 채집농가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채집지역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장미 재배년수가 오래된 농가일수록 살비효과가 낮으므로, 방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가 높은 약제를 선정, 계통별 교호살포가 바람직하다.